

한국인 23명 아프간서 피랍

“인질 석방하라” 목숨 건 가두시위

아프간 주민 1천여명 ‘탈레반 행위’ 규탄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탈레반에 납치된 한국인 석방을 위해 적지 않은 용기를 냈다. 한국인 납치사건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중부 가즈니주(州) 주민 1천여명은 24일 피랍 한인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료와 유아교육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현지의 교민 소식통은 전했다.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도 봉사단의 활동이 선교와 무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가두시위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피랍자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도 ‘여성을 해치는 행위는 전통에 어긋난다’는 현지 정서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카불에 본부를 둔 ‘자유의 목소리’ 라디오 방송의 미르와이스 잘랄자이 프로듀서는 23일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탈레반의 한국인 납치에 큰 슬픔을 느끼면서 우리의

친구인 한국인을 납치한 탈레반의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아프간 국민은 다른 나라 사람의 딸들을 납치한 것은 이슬람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슬람에서는 그런 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며 탈레반에 한국인 인질들의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델리 24일 AP=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경찰들이 24일 가즈니주에서 피랍 한인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가두시위에 나선 주민들을 호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인질 협상 시한 왜 하루씩 연장되나 언론 주목 끌며 상대 압박

협상시한 연장은 고도의 협상전략인 것이다.

23명의 한국인을 억류하고 있는 탈레반 무장세력은 한국인 납치사건 7주째인 24일 “협상을 계속하겠다”며 협상시한을 사실상 또 다시 연장했다.

지난 19일 한국인을 납치한 탈레반은 당초 한국시간 기준으로 21일 오후 4시 30분까지 한국군의 철수를 요구했다가 22일 오후 11시30분으로 시한을 연장했다. 그러면서 아프간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으면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한국 정부가 ‘연말 철군 계획’을 천명하자 이번에는 인질과 탈레반 수감자를 교환하자며 23일 오후 11시30분으로 다시 시한을 늦췄다.

탈레반이 협상시한을 세 차례나, 그것도 하루씩 연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협상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협상에 적극 응하는 한국 정부를 최대한 압박해 자신들의 궁극적인 요구를 받아내겠다는 속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탈레반 역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도 있다.

경찰대 이종화 교수(경찰학과)는 “협상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언론을 이용한 최고의 협상 전략”이라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대방을 긴장시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협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탈레반이 한국 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탈레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석방 조건으로 내건 한국군 철군, 탈레반 수감자 맞교환 외에 또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전문가들은 탈레반이 수감자 석방 권한이 없는 한국 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고 나온 것은 ‘인질 협상’의 전례에 비해 때 때 부족한 근거자료 등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장병욱 소장은 “탈레반의 최종목표는 이슬람국가 수립이므로 대외명분으로 철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질 맞교환 같은 실리도 챙기고 있다”며 “협상과정에서 물질적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납치에서 석방까지 평균 36.4일

아프간 인질 석방 성공 사례 분석...살해 2건 불과

아프가니스탄내 탈레반 등 무장세력의 과거 외국인 납치 사례 가운데 석방 협상에 성공한 경우 납치에서 석방까지 평균 36.4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말 탈레반 포로 8명의 석방을 요구 조건으로 내건 터키인 납치사건 이래 최근까지 석방 협상에 성공한 8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납치에서 석방까지 이 같은 시간이 소요됐다.

협상 도중 인질이 살해당한 2건까지 포함할 경우 납치에서 석방 혹은 살해에 따른 사건 종료까지 걸린 평균 일수는 29.5일이었다.

인질이 살해된 지난 2005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인도인 납치사건의 경우, 각각 3일과 하루만에 사건이 종료됐다. 반면 인질 석방에 성공한 사례 8건의 경우 최소 15일에서 최장 113일이 걸렸던 것

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사례 분석만으로 미뤄보면 이번 한국인 인질 사태는 일단 비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수위는 상당히 낮아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15일만에 인질 석방에 성공한 지난 3월 이탈리아인 납치 사건은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의 파병부대 철군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아프가니스탄 정부로부터 탈레반 포로 석방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협상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2004년 3월 터키인 기술자 납치사건의 경우 석방이 이뤄진 같은 해 6월 26일까지 무려 113일이나 걸렸다.

대부분 성공 사례의 경우에도 납치에서 석방까지 한달여동안 외국군 철수와 탈레반 수감자 석방 등 요구조건을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거쳐야 했다. 【연합뉴스

靑 “8명 석방 정보 없다”

극도 신중론...협상유지 주력 낙관적 외신보도 모두 부인

청와대는 24일 오후부터 외신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가 조만간 해결될 것 같다는 긍정적 보도가 잇따라 나왔지만 “그 같은 정보를 뒷받침할 정황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협상시한인 밤 11시30분을 조금 지나 AFP 통신과 아프간 이슬라미 프레스(AIP)를 통해 “한국인 인질 8명을 석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진전된 소식이 탈레반 소식통을 인용해 긴급뉴스로 타전돼 들어온 이후에도 분위기는 변함이 없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인질과 포로의 8대8 교환’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그런 정보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여러 외신 보도들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공식적인 접촉 경로를 통해 이 같은 ‘뉴스’들이 사실로서 전달되는 않았다는 분위기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상황이 변하거나 진전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을 놓고 정부 당국이 납치단체와의 ‘접촉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요구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거나, 탈레반측이 협상력 제고를 위해 외신을 통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무대응 전략으로 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밤에도 9시부터 9시40분까지 백중전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아프간 현지 대책반 보고를 중심으로 피랍자 수사구환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안보정책회의는 피랍사태가 발생한 이후 6번째 열린 것이다.

계속 연장되는 협상시한이 또 다시 연장되는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시한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접촉선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의 24시간 비상체제는 이날 밤에도 변함없이 가동됐다. 【연합뉴스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Event. It lists various international news events from July 20th to 24th, including the kidnapping of 23 Koreans in Afghanistan and the release of 8 hostages.

Advertisement for '국비지원수강생모집' (National Support Student Recruitment) for '주책관리사·공인중개사' (Real Estate Management/Agent) courses. Includes details on enrollment,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현대직업전문학교'.

Advertisement for '7·9급 공무원 대특강' (7th and 9th Grade Civil Servant Special Lecture). Promotes a course for 2700 students, including 1200 for the 7th grade and 1500 for the 9th grade. Contact: www.mdgoal.co.kr

Advertisement for '김영면 PMS학원' (Kim Myeong-myeon PMS Academy). Promotes a '여름방학 편입대특강' (Summer Vacation Transfer Special Lecture) starting on August 1st. Contact: 227-8088

Advertisement for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Magic Free Student Recruitment). Promotes a magic course for children and adults. Contact: (062)526-2500

Advertisement for '한도로교통사고감정사' (Han-do Road Traffic Accident Appraiser). Promotes a course for becoming a traffic accident appraiser. Contact: 062)528-7788